

[대련일일뉴스(6월13일)]

대련~하얼빈 고속철도 건설

대련과 하얼빈을 연결하는 여객 전용 철도(哈大客運專線)가 건설되며, 대련시에
는 4개역이 설치될 전망이다. 대련시내 부설 거리는 총 143km, 대련역, 대련신역(건
설예정), 新普蘭店역, 新瓦房店역 등 4개역이 설치됨.

哈大客運專線은, 현재의 하얼빈~대련 철도(哈大線)와 병행, 건설되는 것으로
전체 길이 904km. 전체 23개역이 들어서며 장춘이나 심양을 통과하며 총 공사
비는 980억 원.

一汽와 AUDI, 長春에 신공장 착공

中國第一汽車集團과 독일 아우디는 창춘시에 연산 10만대의 신공장 착공. 신공
장은 내년 10월 준공 전망. 건축넓이는 8만 1,610평방 미터로, 「A4」의 최신
모델이나 「Q5」등을 생산할 계획임. 신공장이 완성되면 아우디의 중국내 연간
생산능력은 20만대에 달함.

아우디는 지난해 중국 시장에서 고급차 브랜드로 처음으로 판매 대수 10만대를
돌파. 금년 1~5월 판매 대수도 전년 동기 대비 23.4% 증가한 4만 9,696대를
달성하여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음.

鞍鋼- 벨기에 기업, 重慶에 스틸 와이어 공장 건설

鞍鋼集團은 벨기에 스틸 와이어 메이커인 베카르트와 重慶市에 자동차나 비행
기에 사용되는 스틸 와이어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 鞍鋼과 베카르트는 총 투
자금의 절반인 1억 5천만 유로를 출자

부지면적은 약 20만 평방미터로, 동 제품의 제조 공장으로는 중국 최대 규모이
며 1기에 4천만 유로를 투자하여 2009년 가동을 목표로 설정.

鞍鋼 천진에 R&D·판매 센터 착공

鞍鋼集團이 天津 瀕海新區의 공항물류가공구에 1억 5천만 원을 투자, 연구 개발
(R&D)·판매 센터를 착공하였음. 동 집단의 비생산 시설의 건설프로젝트로는

중국 최대 규모임.

동 집단 관계자는, 철강 관련 무역을 촉진시켜 瀕海新區를 화북 지역의 강재 거대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음.

중국 최대 선박용 엔진 기지, 廣州에 설립

中國船舶工業集團과 廣州市정부는 番禺區에 중국 최대 규모의 선박용 디젤 엔진 제조 기지 설립 결정, 총투자금은 **270**억원임.

주로 하기 **5**개 선박 관련 제품을 생산할 계획임

- ◇ 연산 **1**천만 마력 규모의 저속 엔진 생산 기지
- ◇ 연산 **400**개 규모의 대형 선박용 저속 엔진용 크랭크 샤프트 생산 시설
- ◇ **1**천대 규모의 중속 디젤 엔진 생산 기지
- ◇ 관련 부품의 생산 기지
- ◇ 연간 가공량 **5**만 톤 규모의 선용 보조기 등

천진시, 선박산업 펀드 설립

천진시는 선박산업 펀드 「천진선박산업기금(**200**억원 규모)」 설립을 국무원 신청하였다고 발표

펀드는 **2**가지 방식으로 운용되는데 하나는 통상의 주식투자 형식에서, 船主가 은행에 담보를 제공, 은행 융자의 일정액을 선박 구입에 충당하는 것이며 또 다른 방법은 독일의 **KG**선박 펀드와 같은 방식으로, 펀드의 원금을 제**3**자가 제공하는 형태로 선박 사용자와 소유주가 달라 선박 리스와 유사함.

국무원, 中國移動의 鐵通 인수 승인

中 국무원이 휴대 전화 최대기업인 中國移動(**CHINA MOBILE**)의 유선전화 **3**위 업체인 中國鐵通(**CHINA RAILCOM**)의 완전 흡수안 비준. 中國鐵通이 中國移動의 완전 자회사가 되는 형태임. 이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업계를 **3**개로 재편하겠다는 정책의 일환으로 분석됨.

6월 2일에는 휴대통신업계 2위인 中國聯通(CHINA UNICOM)과 유선 전화 2위인 中國網通(CHINA NETCOM)이 합병을 발표했다. 중국위성(CHINA 샷트콤)의 기초 통신 업무를 中國電信(CHINA TELECOM)에 통합하는 구체적인 움직임도 감지됨.

24시간 편의점, 감시 카메라 의무 부착

상해시는 24시간 영업 편의점에 대해 10월 1일부터 감시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 이는 심야 영업하는 편의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며 해당 편의점은 출입구에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며, 촬영 영상은 최저 7일간 보존해야 함.

상해시에는 현재 24시간 영업 편의점이 4천개를 상회하며, 모든 점포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원가면에서 어렵고, 현실성이 낮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1~5월 승용차, 생산·판매 2백만대 초과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의하면, 1~5월 중국의 승용차 생산, 판매 대수는 226만 6,900대와 223만 4천대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 17% 증가하였음.

차종별의 판매 현황은 TOP 10에 산타나, 제타, 뷰익·엑셀, 캐롤라, 캠리, QQ, 어코드, 엘란트라, 시보레·로바 등이었음. 상기 10대 차량의 판매 대수는 총 71만 1천대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1.8%에 달함.

리튬 전지 생산, 중국 기업 부상

리튬 이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제조업체가 기술과 생산력을 끌어올려 일본, 한국기업을 밀어내고 휴렛 팩커드(HP)나 聯想(레노보)등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고 있음. 이는 최근 일본, 한국 메이커 생산 리튬 이온 배터리의 발열 등의 품질 문제 발생, 또한 코스트 상승 압력 가중으로 노트북 완성업체들이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을 갖춘 중국 기업에 대한 주문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임.

深川比克電池公司是 중국 기업 최초로 리튬 이온 배터리의 자동생산 라인을 설치. 이에따라 작년 HP와 계약을 체결, 원주형 리튬 이온 배터리의 약 50%를 HP나 동사 지정의 전지 설치 기업에 공급. 比亞迪股份도 금년 2월 대만 아스

스택크의 지정 생산 공장의 인증을 획득, 동사 외 레노보(LENOVO)에 대한 공급 개시.

韓 롯데, 네델란드계 슈퍼(MAKRO) 매수

한국 롯데 마트가 네델란드계 대형슈퍼 「萬客隆(Makro)」를 운영하는 中貿聯萬客隆商業有限公司 주식 100%을, 12억 8천만 원에 매수

동사는 매수 후, 樂天瑪特(롯데마트)을 경영하는 樂天超市有限公司를 전액 출자로 북경에 설립. 현재 점포 수는 북경 6개, 천진 2개가 있고 내년 초까지 점포명을 「樂天瑪特(LOTTE MART)」로 변경.

롯데는 향후, 유통 기업을 적극 매수하여 10년내에 樂天瑪特(롯데마트)수를 중국내 300개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발표. 樂天瑪特的 1호점은 6월 18일,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북경시 望京에 오픈할 예정임.

아시아나항공, 대련~서울간 증편 운행

아시아나항공이 6월 16일(월)부터 기존의 매일 오전 10:55분 출발, 매일 오후 2시 15분 출발편 외에 월/화/목/금요일 주 4회 저녁 7시 20분 출발편을 증편 운항함.

또한 7월 1일부터는 월/목/금/일요일로 화요일 항공편 대신 일요일편을 증편 운항함

동북 최초 유럽 직행편, 루프트한자 심양 취항

루프트한자 항공이 심양~뮌헨간 직행편을 정식 취항. 연료 급유등의 문제로 서울(인천공항)을 경유하지만, 동북지역과 유럽 지역을 연결하는 최초의 직행편임.

◇ 월/수/토요일 : 오전 9시 심양 출발, 동일 오후 5시 45분 뮌헨도착

◇ 화/금/일요일 : 오전 11시 55분 뮌헨 출발, 익일 07시 30분 심양 도착 <끝>